사자자리 '별똥별 쇼'

18일 새벽 천정부근과 3시방향에 별똥별이 긴꼬리를 늘어뜨리며 떨어지고 있다. 어안렌즈로 찍어 하늘이 원형으로 나왔다. 이번 사자자리 유성우는 템펠-터틀 혜성(55P/Tempel-Tuttle)을 모혜성으로 하는 유성우로 올해는 예보와 달리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16mm 어안렌즈,조리개 f4, 1시간 30분 노출.

/화순=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3~6세 어린이 신종플루 접종 첫날부터 예약 폭주·문의 쇄도

신종플루 사망자 18명 추가 총 82명

만 3세 이상~6세 이하의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신청이 시작된 18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http : //nip.cdc.go.kr) 사이트에는 접종 예약이 폭주했다. 예방접종 참여 병·의원들도 하루 종일 쇄도하는 문의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광주지역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는 병·의원은 동구 27곳, 서구 77곳, 남구 47곳, 북구 242곳, 광산구 91곳 등 총 479개소다.

예방접종 신청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접속, 사이트 등록 병·의원 중 집에서 가장 가깝거나 접종을 원하는 병원에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예약 절차를 잘 알지 못한 상당수 부모들이 주거지 인근 병·의원이나 사이트 등록 병·의원 등에 전화를 해 접종 절차를 문의했다.

특히 예방접종 병·의원들은 많은 부모들이 무조건 병원에 접수신청을 하는 바람에 다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예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 자체도 지연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조선대병원 소아과는 "모든 직원들이 접종 신청을 문의하는 전화를 받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다"면서 "대부분 접종 시작일인 다음 달 7일 바로 접종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예약이 많아 7일자 예약은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씨티병원 소아청소년과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는 물론이고 원무과까지 3~4분 마다 접종 신청을 묻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사망자가 18명 추가로 발생해 총 82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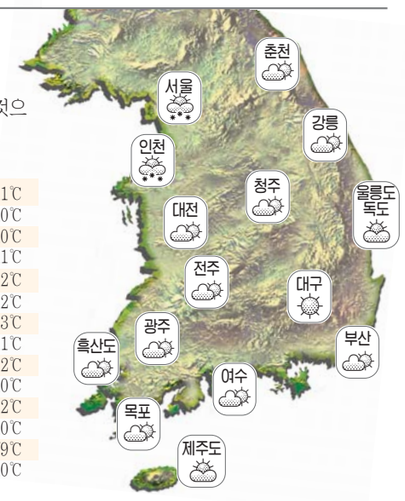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11분 해짐 17시 24분 달뜸 09시 27분 달짐 19시 08분

일교차 커요

낮부터 추위가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광 주	흐린뒤 맑음	1/11℃
목 포	구름많음	3/10℃
여 수	흐린뒤 맑음	4/10℃
완 도	흐린뒤 맑음	3/11℃
구 례	흐린뒤 맑음	−1/12℃
해 남	흐린뒤 맑음	2/12℃
장 흥	흐린뒤 맑음	1/13℃
고 흥	흐린뒤 맑음	1/11℃
순 천	흐린뒤 맑음	2/12℃
영 광	흐린뒤 맑음	1/10℃
진 도	흐린뒤 맑음	2/12℃
전 주	흐린뒤 맑음	0/10℃
남 원	흐린뒤 맑음	−3/9℃
흑산도	구름많음	6/1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북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관심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0~1.5m

	밀물	썰물
목포	03:00 15:55	08:19 21:04
여수	10:29 22:14	03:43 16:3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날 씨						
최저/최고	2/14	3/13	3/14	4/16	4/17	6/15

조서작성→영상 녹화 검찰 '수사 방식' 진화

광주지검 1년새 5배 늘어

광주지검의 영상녹화조사 실적이 최근 1년새 5배 가량 늘어나는 등 검찰 수사방식이 기존의 조서작성 위주에서 첨단 녹화방식으로 급변하고 있다.

1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광주지검과 관내 지청의 영상녹화 건수는 광주지검(본청) 718건, 순천지청 977건, 목포지청 327건, 해남지청 104건, 장흥지청 200건 등 모두 2천326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88건)에 비해 4.8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영상녹화가 검찰의 주된 조사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가운데 진술서(31.1%)를 받거나 조서 작성(18.2%)을 병행한 경우는 49.3%였다. 이처럼 병행조사 비중이 높은 것은 아직까지 법원에서 영상녹화물의 독립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지검 김한조 검사는 "영상녹화물은 인권침해 사례를 줄이고 진술의 진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현재 조서 없이 제출한 녹화물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지만, 앞으로 형사 법정에서 활용도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정갑주 광주지법원장(왼쪽)이 지난 17일 광주지법 법원장실에서 김필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광주지법 제공〉

적십자사, 헌혈 동참 광주지법에 감사패

광주지법(법원장 정갑주)이 헌혈 등 사회복지사업과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지법은 혈액공급이 부족한 방학기간 등 지난 1, 4, 8월 등 3차례에 걸쳐 법관과 직원 등 100여명이 단체헌혈에 동참했고, '재판 없는 월요일' 헌혈 행사, 포스터 제작 등 헌혈 '홍보 대사'로 활약해 왔다.

광주지법은 또 지난 4월 법원 직원 31명이 적십자사 후원회원에 가입해 일정액의 후원금을 내고 있으며, '광주·전남 위기가정 긴급구호품 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인도주의 사업의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탄약고 광주공항 이전 논란 법정 비화

광주시, 구의원 등 2명 고소

의원측 "시민 입 막기" 반발

광주시가 공군탄약고 광주공항 이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초의원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탄약고 이전 논란이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18일 광주시와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탄약고 이전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등 대책위 대표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광태 광주시장이 하계U대회 시설부지로 이용한다는 명분 아래 서구 마륵동·벽진동에 위치한 공군탄약고를 광산구 도호동 일대로 이전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했다"며 "이는 영구적으로 공군부대 광주 존치를 묵인해 주는 잘못된 행정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공군에 탄약고 이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2015 하계U대회 유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며 "대책위가 허위사실을 언론에 보도하도록 해 시의 명예를 훼손, 진실규명 차원에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의 고소에 따라 국 의원은 지난 1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관련 민노당 광주시당과 대책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탄약고 이전 문제는 소음피해로 수년째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며 "기초의원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민의를 대표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역할인데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광주시정에 대한 비판을 막겠다는 의도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 자율학교 59곳 새로 지정

교장 인사권 확대·교육과정 특례 등 인정

광주지역에 교장 인사권 확대와 교육과정 특례 등이 인정되는 자율학교 59곳이 새로 지정됐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고 용봉초교와 지산중, 대광여고 등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36개교 등 59개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했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은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특성화 고교 등이며 일반학교는 살레시오여고와 여중 등 2곳이다. 이로써 광주시내 자율학교는 교장 공모제가 시행중인 극락초와 수완중 등 4곳에서 60개교 이상으로 늘게 됐다.

시 교육청은 학부모·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 권한을 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자율학교는 교장 공모제가 가능하며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 임용이 허용된다. 또 교과별 수업시수가 초·중학교는 20%까지, 고등학교는 35%까지 증감이 가능하며 기본 교과 이외 선택과목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 교사들의 수업 부담 가중, 수능중심의 편법적 교과 편성, 학교장의 독선적 운영에 따른 교사들과 마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